

‘꿀잼도시 광주’ 만들기 초석 다졌다

내년 문화관광 국비 역대 최대 핵심사업 89건 1,544억 반영

비엔날레 라키비움 등 청신호 민선 8기 광주시의 시정 목표 중 하나인 ‘꿀잼도시’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1일 “내년 정부예산안에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핵심사업 89건 1,54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과 비교해 40억원 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비엔날레 인공 지능(AI) 라키비움 구축, 아시아 예술 융복합창작센터 조성, 아시아 설화·신

화 길러콘텐츠 개발 등 신규 사업과 86 건의 계속사업비가 포함됐다.

먼저 1995년 출범 후 세계 5대 비엔 날레로 도약한 광주비엔날레 작품을 아 카이빙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인공지 능 기반의 온라인 라키비움 데이터베이 스 구축비 15억원이 확보됐고, 지역 문 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소통과 교류, 장 작공간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아

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설계비 7억원도 확보했다.

또 아시아 설화·신화 길러콘텐츠 개 발비 20억원을 확보해 예술인들의 협력 과 교류를 통해 대형 뮤지컬 등 길러콘 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 한 형태의 문화·관광산업 상품으로 확 장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화산업분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5호 투자조합) 100억 원, 올해 말 개관하는 첨단실감콘텐츠 큐브(GCC)의 콘텐츠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조성비 40억원, 이스포츠산업 관련 10억원 등이 반영돼 민선 8기 문화 산업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광분야에서도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 건립사업비 40억원, 서창 향토 문화마을 7억5,000만원, 예술관 광중심도시 육성사업비 18억원, 문화 전당 마실길 한바퀴 3억4,000만원 등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예산이 반영됐다.

이밖에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조성 사업비 26억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 의벨트 조성사업비 20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13억7,000만원, 아시아에 술정원 조성 17억원, 서구 만다비체육 센터 건립비 19억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 40억원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의 마무리 예산도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거 뒀다.

김요성 시문화체육실장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COP33-2030세계박람회 맞손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그랜드홀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정기명 여수시장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2030세계박람회’ 상호 유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 유치해야”

전남시민사회·정치권 촉구 도의회서 토론회·공동성명

전남지역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유치를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일 오후 의회 초의실에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전남 권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와 추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총 사업비 320억원 규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 보성, 순천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갯벌 1,284.11km² 면적 중 신안의 갯벌만 85.7%인 1,100.86km²에 달하는 등 신안·보성·순천의 갯벌이 9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갯벌 세계자연유

산 보전본부 전남 유치를 위해 시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전남의 갯벌은 전국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생업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갯벌 보전본부는 오랫동안 세계 유산을 준비해 온 신안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최정훈 전남도의원 등 도의원과 전남도 및 신안군 공무원, 동 아시아갯벌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 기관과 단체들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정책협의회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재민 기자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농수산물 판촉·관광 활성화 대규모 후원체계 본격 구축

전남도가 농수축산물 판촉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100만명을 목표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육성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대규모 후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 전남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포터즈에 가입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도내 생산품 판매 촉진과 전남 관광 활성화 등에 참여·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도내 150여 가맹점에

서 할인 혜택을 받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자동 발급해준다. 농수축산물 할인 구매를 비롯한 주요 숙박·레저·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포터즈 가입은 오는 8일 전남도청 누리집(https://www.jeonnam.go.kr/)에 접속해 서포터즈 신청폼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신청서 작성을 통한 서면 방식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정근산 기자

광주도시공사, ESG대상 경영부문 ‘장관상’

광주도시공사는 1일 “대한민국 ESG(환경·사회·거버넌스)조직위원회와 정부 11개 부처가 주관한 2022 제17회 대한민국 ESG 대상 시상식에서 경영부

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기업 활동에 친환경·사

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선 포식을 통해 ESG 경영 비전(탄소중립 도시·따뜻한 지역공동체·신뢰받는 도

시공사)를 제시했다. 또 ESG 경영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 노력을 이어왔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ESG 경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친환경·일자리·안전경영·윤리경영·사회적가치 등 ESG 경영전략과 추진과제 62개를 확정했다. 이어 ESG 경영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128개)을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수소차 130대 추가 보급

6일부터 보조금 신청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수소차 150대 보급에 이어 130대 추가 보급을 위해 6일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차량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 130대 중 117대는 일반 시민 및 법인에게, 1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 우선 대상자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 전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광주시내 연속해 90일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광주시내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과 법인·단체 등이며, 구매 신청은 1대로 제한된다.

수소차 출고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차량 계약 시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기반산업과(062-613-3932) 또는 차량 제조·판매사(광주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광주시에는 수소 시내버스 12대를 포함한 수소차 1,017대(7월 기준)가 운행중이며 이달 중 수소 시내버스 10대를 추가 투입해 대중교통을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진곡수소충전소 ▲동곡수소충전소 ▲임암수소충전소 ▲벽진수소충전소 ▲월출수소충전소 ▲장등수소충전소 등 6개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10월 매월수소충전소(민간사업자) 운영 개시, 12월 벽진수소충전소 1기가 증설된다.

송희중 시 기반산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백운 지하차도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7일 남구청 8층 대회의실

광주시는 7일 오후 2시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백운 지하차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운 지하차도는 당초 지하공간 부족으로 일방향 2차로로 계획했으나 ▲운전자 혼란 해소 ▲일방향 대비 평균 사고발생 감소 ▲시민의견 반영 등을 고려해 2021년 양방향 2차로로 변경됐

며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침수사고 예방,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백운 지하차도는 기존대비 시설을 강

화해 배수펌프 4대, CCTV 10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설치 등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설계 강우강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시 CCTV 감지 및 비상방송 실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작동해 침수피해를 막는다.

화재 및 교통사고는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지하차도 내 소화시설(분말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환기시설(제트팬) 등을 활용해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공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아미스능력개발원

383-3344

현대아미스그룹

- 현대아미스(주)
- 아미스(주)
- (주)한솔티엠에스
- 한솔엘리베이터(주)
- (주)아미스능력개발원
-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 (주)아미스개발
- 메인기획협동조합
- 복지TV오남방송

회장 김우열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록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